



중국학부 소식

News

● 인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국제교류역량 강화 캠프 개최

우리 학부는 7월 18일 교내에서 인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국제교류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각 고교 학생들이 직접 부산외대 중국학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진 이번 강화 캠프는 다양한 언어와 관련 진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강화 캠프 책임자인 이효영 외국어연구소장(중국어전공 주임교수)은 “이번 강화 캠프에서 중국어 수업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문화의 중요성, 이와 관계된 진로와 취업 방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글로벌 시대 중국어와 중국학 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강 후반부에는 중국학부 소속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직접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여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 중국학부, 인하사대부고에서 고교생 대상 진로 특강 개최



부산외대 중국학부는 7월 7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하사대부고(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인하사대부고는 1971년에 개교한 인천의 명문 사학으로 대한항공 인하학원 재단 소속이며, 창의, 근면,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진로 특강은 이효영 교수 주관으로 탄뎀학습법(한국인 중국인 1:1학습)을 활용한 ‘탄뎀으로 배우는 중국어와 문화교실’이 운영되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특강에서 중국어 및 중국문화 학습의 필요성을 강의했다. 문화체험 시간에는 ‘중국 전통 매듭’과 ‘전지’ 활동을 경험했다. 탄뎀수업은 상하이 지역 중국 대학생들과 인하사대부고 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후, 참여 학생들은 소감 발표에서 “특강을 통해 중국어와 중국문화 학습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과 온라인 탄뎀을 통해 글로벌 소통을 경험한 것을 가장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체험으로 꼽았다.

● 부산외대 중국학부, NIA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부산외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추진하는 AI 데이터 구축사업인 ‘202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1번 과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영/중/일 통번역 데이터(사업비 총42억)”구축에 참여한다. 본 사업은 교육, 법률, 챗봇, 음성인식, 문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대량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AI 성능 향상에 핵심 요소이나, 데이터 수집·가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이를 대학, 기업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부산외대 과제책임자인 중국학부 이효영 교수는 “지역 최대 외국어 특성화 대학교인 우리 대학이 그간 축적하여 온 외국어 교육역량을 통해 이번 초거대 AI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으며, 이번 과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AI 통·번역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국학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학부 소속 재학생들의 AI활용 외국어 학습 및 통번역 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학생들의 언어 및 AI 분야 경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신문 D/B © 2023.



중국학부, 2023년 하계 방중 대만단기 어학연수 실시



부산외대 국제교류처와 중국학부에서는 2023년도 여름방학 기간, 대만사범대 중국어학당(國立臺灣師範大學 華語中心)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진행했다. 대만사범대는 대학어학센터 중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화권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곳이다. 또한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며 야시장도 가까워 생생한 현지 생활과 중국어 학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연수는 2023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45시간에 걸쳐 집중학습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강의실 내 중국어 수업은 물론 현장학습(예류지질공원)과 문화체험 수업도 수행되었다. 특히 엔데믹 선언 후 재개된 부산-타이베이 직항편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34명의 재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13명(38%)은 중국어를 부·복수 전공하는 타과 재학생들이었다. 매번 방학 중에 실시되는 방중 단기어학연수는 연수 기간 내내 중국학부 교수님(이효영, 파이허언)들이 학생들과 함께 체류하며 기숙사 생활, 수업, 현장활동까지 관리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참가자 모두 과정을 완료하여, 부산외대 규정에 따라 3학점(전공 혹은 자유학점)을 인정받았다.



▲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국 기념사진

대만사범대 어학센터 수업 모습 ▼





● 대만 하계 어학연수 이모저모

◀ 현장 학습: 예류지질공원(野柳地質公園). 신베이시 완리구 위치. 자연적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기암들로 유명한 곳.

▼ 문화 체험수업: 평리수(鳳梨酥) 만들기. 평리수는 파인애플 잼이 들어간 대만의 대표적 과자임.



▼ 지우펀(九份): 신베이시 루이팡구에 위치한 지명. 1930년대에는 금광으로 번영하던 도시였음. 1989년 영화 '비정성시' 촬영을 계기로 현재는 유명 관광지가 됨. '꽃보다 할배(tvN)' 촬영지로도 유명함.

스펀(十分): 핑시옌 기차가 오가는 철로에서 소원을 풍등(天燈)에 적어 하늘에 날려 보내는 마을 ▼





● 중국 유행어 한 마디



김정훈 교수

亲(qīn) 여러분, 님

인터넷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 교류할 때 두루 높여 쓸 수 있는 말이 있죠?

바로 “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게 주로 쓰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일상 속 생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에서 친근감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호칭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우리의 ‘님’과 같은 성격의 유행어가 있는데요. 바로 ‘亲(qīn)’입니다.

‘亲(qīn)’은 원래 ‘亲爱的(qīn'àide)’의 줄인 말로 ‘여보, 자기’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국의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淘宝(táobao)’에서 처음으로 손님들을 ‘亲(qīn)’이라 표현하며 유행어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亲(qīn)’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의도로 애매한 관계나 쉽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爱(ài)’를 빼고 ‘亲(qīn)’을 통해, 조금 더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였죠.

고객들 역시 중국어의 흔한 호칭인 “你好(nǐhǎo)” 보다는 ‘亲(qīn)’이라는 단어에 더 큰 호감을 느끼며 일상 속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亲(qīn)’은 현재 ‘淘宝(táobao)’ 외에도 메신저나 SNS에서 상대방을 지칭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가장 친근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亲, 请按交通信号灯通行哦!

qīn, qǐng àn jiāotōng xínghàodēng tōngxíng ò

여러분, 교통신호를 잘 지켜 주세요!



바이두 이미지 D/B © 2023.

● 중국의 음식 테마 축제, 쑤보(淄博)시를 찾아서



오혜정 교수

중국 도시들은 다양한 테마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꼬치구이를 테마로 한 쑤보시 꼬치축제를 살펴보자. 쑤보는 산둥성에 위치한 인구 470만 명의 도시이다. 고대 제나라의 수도이자 청대 괴기소설 '요재지이(영화 천년유혼 원작)' 저자인 포송령 생가가 있다. 3년간의 COVID-19가 끝나자 그간 여행과 외식에 목말랐던 중국인들은 야외에서 맥주와 함께 꼬치구이를 먹는 것에 폭 빠졌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쑤보 방문 후기가 SNS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쑤보 열풍'을 일으켰다.

이러한 열풍에는 훈훈한 일화가 있다. 산둥대 학생들의 격리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난 캠퍼스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쑤보시가 지원을 하였는데, 격리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꼬치구이 파티'를 열어 정성스러운 식사 대접을 한 것이다. 엔데믹 선언 후 금년 3월 쑤보시에 이를 보답하기 위한 산둥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이러한 트렌드가 SNS를 타고 중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위한 '쑤보 투어'에 동참했다.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자리잡기 위해 지방정부는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와 쑤보시를 연결하는 '꼬치구이 여행 전용열차' 노선까지 개설하면서 이슈를 활용했다. 한편, 단기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꼬치구이집들이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중국경제 불황으로 노동절 연휴 이후 관광 수요가 급감하면서

'쑤보 열풍'이 식어갔다. 인플루언서들의 입소문에 의한 인기에 의존한 일시적인 붐 현상이 공급만 늘려놓은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꼬치 테마'가 이슈와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지역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시사한다.



바이두 이미지 D/B © 2023.

▶ 중국 SNS에 올라온 '쑤보 꼬치구이' 인증 사진. 잘 익은 꼬치구이를 얇은 전병에 싸서 먹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레터 공지사항

Notice

● 중국학부 인스타그램 계정 (bufs_china) 오픈

중국학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소식과 사진을 이제 인스타에서도 만나보세요.

● 중국학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안내

우리 학부에 관한 최신 정보는 우측 QR 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학부 유튜브 채널



부산외대 중국학부

